



## 토마쿨라

글 김용준, 그림 이솝 / 책고래



### 머리털이 쭈뼛! 가슴이 철렁! 소름 돋는 흡혈귀 이야기

《토마쿨라》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흡혈귀가 나온답니다. 사람의 피 대신 빨갱게 익은 토마토를 먹는 드라쿨라, ‘토마쿨라’ 이야기지요. 주인공 케이이 사는 아파트 앞집에 이상한 아저씨가 이사를 왔어요. 비쩍 마른 몸에 길쭉한 송곳니가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운 아저씨였어요. 하루는 우연히 아저씨 집 안에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, 불이 모두 꺼진 방 안에서 토마토를 먹고 있는 거예요.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니 사람은 안 보이고 옷만 허공에 둥둥 떠 있었지요. 케이의 예상대로 아저씨는 사람이 아닌 흡혈귀였어요. 하지만 사람의 피는 마시지 않는대요. 물 좋은 토마토만 먹는다고요?

무뚝뚝하지만 가슴은 따뜻한 토마쿨라와 가까워진 케이. 그런데 케이 앞에 또 다른 흡혈귀가 나타났어요. 바로 새로 온 담임선생님이지요. 선생님은 케이의 피를 빨아 몸을 빼앗으려고 해요. 과연 케이는 흡혈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?

### 독후활동 시작하기

📍 다음 그림을 보고 등장인물과 관련이 있는 말을 <보기>에서 골라 빈칸에 적어 보세요.

<보기>

스카프, 여행, 피시방, 화가, 배우 지망생, 분리수거장



Q 케이는 토마쿨라가 자신의 피를 나누어 준 덕분에 흡혈귀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. 하지만 토마쿨라는 재가 되고 말았어요. 남을 위해서 목숨이나 재산, 이익 등을 기꺼이 바치는 일을 '희생'이라고 하지요. 주위에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 보세요.




---



---



---

Q 다음은 공익광고 <그런 사연 없어요>의 한 장면입니다.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.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무엇인지 그 까닭과 함께 적어 보세요.



내가 생각하는 가족은?

---

그렇게 생각한 까닭

---



---



---